



황정민

“현실 절친 영화 투톱 처음이죠”

다음달 개봉 '교섭' 황정민-현빈

아프가니스탄서 한국인 납치사건 교섭 통해 사건 풀어가는 과정 외교관·국정원 요원 역 맡아 열연 “촬영현장에서 배우로 만나니 짜릿”

에) 서보니 그전에 알던 친구가 아닌 그 인물로 다가왔다”며 “배우로서 느끼고, 짜릿하고, 행복한 게 있었다”고 현빈과 첫 작업을 돌아봤다.

작품 속 국정원 요원 대식처럼 이날도 수업을 기르고 나온 현빈은 “의지하고 배울 게 많은 선배이자 형이었다”며 “황정민 선배와 같이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우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다른 시각을 느꼈다”고 떠올렸다.

영화에서는 배우 강기영의 변신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팬들과 가까워진 그는 ‘교섭’에서 아프간 공용어인 ‘다리어’와 ‘파슈투어’에 능한 현지 한국인 통역 ‘카심’ 역을 맡았다.

작품에서 ‘신스틸러’를 예고한 그는 두 현지어를 마치 랩 하듯이 자연스럽게 구사할 정도로 파나는 연습을 했다는 후문이다.

“황정민 선배가 지독할 정도로 더 나은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배웠습니다. 현빈 형은 중원에서 스테프와 밸런스를 맞추는 미드필더 역할을 했죠. 저는 제 입으로 ‘무키(신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의 루키가 되고 싶습니다.”

‘교섭’은 임순례 감독이 2018년 ‘리틀 포레스트’ 이후 내놓은 신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2020년 크랭크인에 들어가 제작과정에 어려움이 컸다.



현빈

대부분 나라가 출입국을 봉쇄하면서 국내의 촬영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프간 현지 환경과 유사한 요르단 와디 럽 사막에서 진행된 현지 촬영은 무더운 날씨와 사막 바람으로 인해 제작·출연진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 한식을 선호하는 황정민은 현지식이 맞지 않아 두 달여 해외촬영 기간 입 감독과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기도 했다.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저녁밥 지어서 불러주시고, 먹고서 그릇을 치우려고 하면 ‘본인이 하겠다’며 밖으로 다 보냈습니다. 형님 방 앞을 지날 때면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현빈·강기영)

임 감독은 세 배우와 작업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황정민과 작업은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 20년 만이며, 현빈과 강기영은 이번 작품에서 첫 호흡을 맞췄다.

“황정민 배우는 영화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분이예요. 현빈 배우를 보면서 ‘신이 잘생기긴 것 같아 주셨으면 다른 면은 허술하기도 한데 이 사람은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강기영 배우는 성실하고 진지하고 인간적으로 멋진 배우입니다.” /연합뉴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교섭 전문가인 외교관 ‘재호’가 현지로 급파되고, 중동에서 활동해온 국정원 요원 ‘대식’과 피랍사건 해결에 나선다. 원칙이 뚜렷한 재호와 어떻게든 피랍민을 구출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대식이 맞서는 사이 탈레반이 정한 인질 살해사한이 다가오고 다급한 마음만 커진다.

내년 1월 설연휴를 겨냥해 개봉하는 영화 ‘교섭’은 아프간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들을 구하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다. 영화는 피랍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섭을 통해 사건을 풀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풀어간다.

친분이 각별한 것으로 잘 알려진 배우 황정민과 현빈은 이번 작품에서 첫 연기 호흡을 맞췄다. 두 배우는 극 중 외교관 재호와 국정원 요원 대식 역을 각각 맡아 사막에서 펼쳐지는 탈레반과 교섭을 끌어간다.

황정민은 20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교섭’ 제작보고회에서 ‘대식’과 재호라는 사람으로 (촬영 현장

내년 광주비엔날레 준비 어디까지 3차 미래혁신위 개최...추진 현황 등 공유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21일 제3차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 지난 회의 도출과제에 대한 결과보고,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추진 현황 보고 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열린 제2차 미래혁신위원회 도출 과제였던 인재 양성을 통한 조직 경쟁력 확보, 광주비엔날레 차별화 및 국제적 위상 강화, 비엔날레 도시 광주, 예술관광 연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총력 등에 대해 재단 측에서 추진했던 후속 조치들을 공유했다.

재단 측은 올해 하반기 9월과 11월 두 차례 정규직 공채를 통해 지역 인재 7명을 채용했다. 광주의 문화예술 특화 전문 인력을 양성해 동반 성장해나가고 노후를 축적하자는 취지에서 대규모 지역 인재 공채가 추진됐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베니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던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일궈내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전시를 확장했다.

내년 행사 기간 동안 기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지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 광주 전역을 문화예술 현장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과 함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비엔날레 2일권 입장권을 개발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총력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공간 창출을 위해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추진 현황 등이 공유됐다. 이날 위원들은 개막이 107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의 문화예술 기관 등을 비롯해서 민관이 협력해야 하며 특히 광주시 차원에서 광주 전역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해외 인적 네트워크 축적의 중요성과 시민 사회와 함께 하고 다양한 채널 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녀 양육 지원사업 성과·과제 분석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 브리프’ 60호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에 대해 양육자들이 인식하는 성과와 욕구, 향후 과제를 분석한 젠더브리프 60호를 발간했다.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2019년부터 저출산 극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먼저 출산·양육 실태를 살펴봤을 때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승진, 경력유지(29.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23.8%)’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맞벌이 가구(32.6%)와 외벌이 가구(29.7%) 모두 긴급돌봄휴가 또는 가족휴가제도 확대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추가 출산 계획 여부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24.6%였지만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75.4%로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출산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현금지원(35.0%)’, ‘보육·교육(25.6%)’, ‘의료·건강(20.2%)’, ‘육아시간(6.7%)’, ‘돌봄서비스(5.8%)’, ‘초등 돌봄(4.0%)’, ‘주택지원(2.8%)’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경우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는 ‘출생 축하금·육아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높은 정책필요도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이었다.

젠더브리프 제60호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문의 062-670-0540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불타는 트롯맨’ 제2 임영웅 나올까

MBN 첫 방 시청률 8.3%...100개 팀 경연

아직 빛을 보지 못한 트로트 원석들을 화려한 무대로 담아낸 ‘불타는 트롯맨’이 8%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10분 처음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 시청률은 8.3%로 집계됐다. MBN 역대 최고의 첫 방송 시청률이다.

첫 회에서는 준비 기간 6개월 동안 예심 심사를 거친 100팀의 트롯맨들이 트로트 경력만큼의 숫자가 적힌 트레이닝북을 입고 등장했다. 이들은 어린 나이의 참가자들이 모인 팀, 타 장르 가수들이 모인 팀, 트로트 경력이 오래된 팀 등 총 10개 팀으로 나뉘어 팀 안에서 각자 개별 무대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각자 다채로운 경력을 뽐냈다. 전곡노래자랑

과 박달 가요제 등에서 우승했던 공훈, 성악가 신명근, 국악인 조주환, 뮤지컬 배우 에녹 등이 출연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며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합격을 받았다.

‘불타는 트롯맨’은 TV조선 ‘미스터 트롯’ 등으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서혜진 PD가 기획과 연출을 맡아 방송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프로그램 구성과 오디션 진행 방식이 ‘미스터 트롯’과 겹쳐 보인다는 반응도 있지만, 상금에 제한이 없는 ‘오픈 상금제’ 등 새로운 시도로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 기본 상금은 3억원이고, 무대를 심사하는 13명의 대표단이 합격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만원씩 적립된다. 심사위원 모두에게 합격 버튼을 받는다면 상금의 2배인 260만원이 적립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